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온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알아들이리만큼 경고하였다.

그러나 반공화국대결에 환장된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지난 5월에도 북침을 노린 전쟁소동을 그칠새이 버리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남조선군의 3군단과 8군단들이 린계군과 고성군, 속초시일대에서 야외기동전술훈련을 벌였고 5월초에는 남조선장검 미군과 야합한 폭발물류 및

제거훈련을, 다음날에는 육군 25보병사단들이 경기도 파주시 무진리훈련장에서 실탄사격놀음을 벌여놓았다.

이후에도 경기도 련천군일대에서 남조선장검 미군과 야합한 련합도하훈련과 련합정보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졌으며 특히 5월 12일부터 19일까지는 공화국의 주요대상들을 타격하는데 목적을 둔 대규모공중중합훈련인 《소령이글》(《높이 나는 독수리》)을 벌여왔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경기도일대에서 25일부터 벌여놓은 화약배격은 《2023 련합동화력격멸훈련》은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침략야망, 전쟁대결광기가 위협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상선들도 기괴하다고 하는 《격멸》이라는 단어를 한사코 훈련명칭에 박아넣고 역대 최대규모로 강행되고 있는 이번 전쟁연습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야망의 집중적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최근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 야합하여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이라는 것까지 기도하였다.

그 무슨 《대량살상무기의 전파》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공화국의 선박들에 대한 강제 억류, 검문, 검색과 함께 함만봉쇄를 노린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은 그 성격과

재침의 명예 헬기 쉼터 천안항천

지난 5월말 일 본해상 《자위대》함선이 일본군주주의 상징인 《육일기》를 날리며 부산항에 베 것이 임할하였다.

공화국을 겨냥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호전파들과 함께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한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본해상 《자위대》함선이 남조선에 기여 든 것은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조선훈도로 확대하고 반공화국압살을 위한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마디로 재침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침략적기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섬나라것들이 해상 《자위대》함선의 부산항의 임항과 관련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느니,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니 하고 떠들었지만 그 어떤 궤변으로

도 저들의 침략적본색을 가리울수 없다. 끝발린 소리로 추악한 속심을 가리우는 것은 섬나라것들이 력대로 써오는 상투적수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1876년 2월 7척의 군함을 끌고와 조선봉건정부에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할 때에도 《조일사이의 평화와 친선을 도모》한다는 구실을 내뱉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력사에 새겨진 갑오농민전쟁시기에는 《거류민보호》, 《공사판, 령사관호위》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무력을 들이밀었다.

섬나라것들의 이 간혹하고 간혹하며 후안무치한 본색은 오늘에 와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른바 《북의 위협》에 미일남조선이 《3자공조》로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



말 말 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법칙》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과거 (바이든-날리엔) 토중에서》

《(육일기)를 단 일본(자위대)함이 부산항을 유린했다. 항일렬사들이 지하에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며 력사정의를 무너트린 폭거다.》

(일본 《자위대》함선이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임항한데 대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의 성명중에서)

미군강점 70여년의 후과, 극심한 환경파괴

얼마전 남조선에서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통산시민회의》의 주최로 《통산공원, 오염정화까지 먼저! 만보경기》의식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국민)혈세를 탕진해가며 이진한 《대통령실》 근처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오염정화는 생략한채 이른바 《통산공원》이라고, 《어린이정원》이라고 명명하면 그것이 진정 공원이 되겠는가.》,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공원으로 성립될수 없다. 《통산공원》개방은 《국민》사기》이라고 성토하였다.

남조선장검 미군의 환경파괴피해를 묵인비호하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신랄한 단죄이고 규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침략과 약탈, 예속과 굴종으로 일어난 남조선미국 《동맹》, 70년사에는 남조선땅에 동지를 만들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죄악이 얼룩져있다.

미군이 남조선의 이른바 곳마에서 현지주민들을 강제로 내몰고 수많은 미군기지를 건설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현재 남조선에 동지들은 미군기지의 총면적은 100여개 지역에 7320만평에 달하였다.

남조선의 곳곳에 독거미마냥 들어박힌 미군기지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을 유린하고 온갖 폐물배출과 범죄를 낳는 온상, 악의 근원으로 되어왔다.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로 인한 피해 또한 막심하다.

미군기지들과 그 주변지역은 강점군인 오래동안 내버린 폐유와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화하였고 주변민의 강타적 역시 먹지는 물론이고 공업, 농업용수로도 리용할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지어 미군은 고엽제를 비롯한 독해물까지 마구 내버리고 남조선땅에서 극악무도한 세균무기실험까지 감행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해왔다. 이 뿐이 아니다.

미군은 저들이 사용하던 기지들을 황폐화시켜놓고 그에 대한 원상복구는 없이 그대로 남조선에 넘겨줌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하고있다.

몇해전 춘천시에 있던 남조선장검 미군기지의 여러곳에서는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선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골조사과정에 아스팔트포장재가 들어있는 폐도람통들도 발견되어 주변환경이 심히 오염되어

시) 피할수 없는 숙명

김영일

미국이 던져준 개목사리 그 무슨 보석목걸이인양 자랑하던니 오늘은 미국상전에게서 미치광이와 불리운 역도

역시 수하의 줄개는 상전이 잘 아는 법 울레갈데 없이 역도는 미친개!

상전을 위해서라면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역도의 추태 제 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무모한 광태에 너무나 어울리는 미치광이 이런 《선물》받고도 싱글벙글하는 영나없이 그 꼴은 미친개불붙이구나

《북비핵화》, 《3자공조》 게거품 물고 영악하게 짓어대며 아무나 물고뜯는 그 광태

간도 쓸데도 서슴없이 섬겨바치는 그 행태 미치광이와 너무나 신통해 상전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 《미치광이》

미국의 개목사리를 목에 건 주체에 여기저기 코를 비틀거리며 죽을등살등 모르고 짓어대는 역도 미국의 총견, 사냥개로 사는것도 모자라 섬나라의 변견으로까지 되었구나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 겨레가 추켜든 몽둥이에 그 언체 사등뵈가 부러질지 모른다 역도가 같길은 정해져있거늘 못매를 맞아 처절하게 숨이 끊기는 그것이 미친개 윤석열 너의 숙명이다

있었다고 한다.

춘천시뿐이 아니다. 미군이 틀고있었던 각지의 미군기지 오염실태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의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토양과 지하수환경오염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 대구시에 있던 남조선장검 미군기지 《캠프 워커》직승기착륙장의 토양,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도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이곳의 건물내부에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었으므로 나타났고 조사결과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그 검출면적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만여㎡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비소는 그 기준치를 14.8배나 넘어섰으며 그것은 이곳이 거주지역으로 쓰일 경우 주민 1만명당 2명이 암에 걸릴수 있는 량으로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동두천과 포항 등 미군기지들에서도 기준수치를 훨씬 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땅을 한갖 전쟁연습터, 오물처리장으로써 여기저기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미군이 저지른 특대형 죄악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많은 사안들이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어왔다. 《한미군사동맹》을 아무도 건드림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자존심과 주권을 희생시켜온것이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주장하면서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올해가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 체결로 《동맹》관계를 수립한지 70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그 무슨 《군견한 동맹관계》와 《쌍방관계의 도약》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친미노복들만이 할수 있는 추악한 사대미국적수태가 아닐수 없다.

죄악으로 가득찬 강점군의 력사를 미화분석하면서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일제식민지통치를 찬미하던 어제날의 을사오적과 다를바없는 천추에 용다 못할 만고역적의 무리이다.

김영일

《온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심판을 위한 대중적투쟁 광범하게 전개 -

